



국민의힘 비례대표

황 경 아 의원



“화재 및 감염병 상황에서의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스포츠클럽 활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구)충남과학교육원 현황 및 향후 활용 방안은?”



황 경 아 의원

◎ 황경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황경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대전시민 중에 특히 안전취약계층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정 및 교육행정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화재발생 시 장애인의 대피와 구조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난 8월에는 홀로 살던 시각장애인이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현관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또 지난 9월 1일 새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서 거동이 불편한 5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그밖에도 화재로 인한 장애인들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사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전시 등록장애인은 7만 2천여 명으로 대전인구 대비 5%에 달합니다.

이 중 재가장애인은 약 7만 명이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2만 7천여 명입니다.

앞서 언급한 화재사고는 장애인이 혼자 살고 있는 1인가구라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화마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화재 시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자료요구를 했지만 소방청은 화재사망자 현황 조사 시 장애여부를 등록하지 않으며 가구형태별 재가장애인 현황은 통계자료 자체가 없었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에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수요조사를 통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 등의 대피요령 매뉴얼과 대책이 있는지도 알아보았는데 역시나 없었습니다.

피난약자 화재 신속탈출 매뉴얼이 있었지만 요양원이나 장애인 관련 시설의 매뉴얼 뿐이었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계획을 실효성 있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별과 보호자 동거여부와 같은 현황을 포함한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진행 중인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상시 안전 확인을 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 및 구급서비스를 20명의 응급관리요원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 안전취약계층 세대를 모두 다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 119안심콜서비스가 2008년 9월 전국 서비스로 진행되고 있으나 가입절차

등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2021년 기준 1% 가입률과 0.6%의 초라한 실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는 재난이 장애인들에게 가혹하고 불평등하지 않도록 장애인 안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더욱더 강화되어야 하며 장애인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더 촘촘하고 탄탄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난상황에 대비해 재난약자 DB를 구축하여 재난발생 시 장애인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와 구조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야 합니다.

시장님,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는 얼마 전 재난 대피요령을 배우기 위하여 시민 두 분과 119시민체험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저와 같은 경추 손상 장애인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은 없었습니다.

소화기도 못 드는 독거 중증장애인의 가구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하나 생각만 해도 두렵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 영상자료 개시)

(15시 08분 영상자료 종료)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방금 전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비장애인도 연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탈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시각장애인과 휠체어장애인에게는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황인 것입니다.

새로 지어질 대전시민안전체험관은 장애인들도 대피요령 등을 체험하면서 화재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방구조대원들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구조 매뉴얼을 익힐 수 있는 훈련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님은 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감염병 대응 관련 질문입니다.

시장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사망한 인구 중 장애인의 사망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올해 1월 말 기준 확진자 총 1만 3,394명 중 사망자는 500명으로 치명률이 3.7%에 이릅니다.

이는 비장애인에 비해 23배나 높은 것입니다.

이렇게 장애인의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은 이유는 중증장애인 확진자를 집중관리군이 아닌 일반관리군으로 취급하는 등 대응체계가 허술한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제공받은 자료 중 코로나19 중증장애인 치료대책을 보면 장애인의 중증도는 고려하지 않고 증상을 기준으로 경미한 증상의 환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으로 인하여 감염병에 대응하는 것이 비장애인과 같지 않습니다.

경미한 증상이라도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중증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의 지침에만 의존하는 감염병관리대책은 장애인을 감염병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시장님, 코로나19가 2020년에 창궐하여 3년이 지난 2022년도 지금에야 장애인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 생겼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인 확진자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3년 동안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은 공포 속에서 살면서 정부와 대전시의 감염병예방 지침에 의존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확진이 되어도 별도의 관리대상으로서 통계에도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에 저는 추후 장애인 감염병 대응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님께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상황 발생 시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거주형태별 기본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계자료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가 공유되어 장애인 담당부서와 관련 시설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국가 주도의 감염병 대응에서 나아가 지역의 상황에 맞는 대응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 장애인 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 부서, 감염병 대응을 하는 건강·보건 부서가 협력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스포츠클럽은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으로 분절되어 있는 스포츠시스템을 연결하는 다리로서 급격한 인구감소로 학생선수와 팀 감소 등에 따른 시대적인 필요성과 함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학교운동부 운영에 나타났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이 참여하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정책에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하나로 운동부가 있는 학교와 연계를 하여 대전형 스포츠클럽 활성화 정책을 진행해 주실 것에 대해 제안합니다.

올해 6월 16일부터는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되면서 스포츠클럽 지원과 진흥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 두 가지는 스포츠클럽 등록제와 스포츠클럽 지정제로 기존에 운영했던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을 넘어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향한 큰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문체부가 선정한 2022년 지정스포츠클럽 현황을 보니 선정된 69개소 클럽 중에 대전에 소재한 스포츠클럽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도 문체부와 공동으로 학교체육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정스포츠클럽을 별도로 공모하고 7개 시·도 20개소를 선정하였는데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원대상으로 했던 이 사업에 대전시에는 신청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이 단 한 군데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허브도시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시가 체육진흥을 위해 스포츠클럽 등록을 활성화하고 지정스포츠클럽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및 직접적인 스포츠클럽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서는 스포츠클럽 육성과 활성화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민의 비전이 담긴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과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체육인재 육성 시스템 구축을 위해 클럽 형태의 전환도 논의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에는 60곳의 초등학교, 63곳의 중학교, 38곳의 고등학교로 총 161개의 학교운동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소속된 학생 수가 부족해서 단체종목 한 팀을 구성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으며 축구 등의 인기종목은 학부모에게 과도한 경비 부담을 가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2022년 현재 부산,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전북, 전남, 경남 등 이미 절반 이상의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부를 클럽으로 전환했고 다른 지역들도 전환 논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 이상 운영사례가 쌓인 시·도의 사례를 검토한 후 지역의 다양한 소속과 수준의 학생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대전형 체육클럽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클럽 전환을 위해서는 종목을 선정하고 학교 구성원의 동의와 대전시와의 협력체계 등 다양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 충남과학교육원 현황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대전을 비롯한 많은 도시에서 재개발·재건축 등의 개발사업을 통한 외연 확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도시 곳곳의 유휴시설 또는 공간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폐교 두 곳, 유휴재산 3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유휴시설 또는 공간을 활용하여 대전시민 공공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일자리창출, 생활SOC 확충,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활용하는 사례에 따라서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설립예정지로 절차가 진행 중인 구 충남과학교육원에 관하여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제공된 구 충남과학교육원 유휴재산 활용을 위한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추진계획을 보면 진로융합체험, 진로관리시스템, 진로검사 및 상담, 진학상담, 고교학점제 진로학업설계, 지역연계 진로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6학년에서부터 고3 학생 그리고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에 공간 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이 준비 중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 이용대상자 측면과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간 활용 측면에서 보완을 했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특수학교 6개 학교에 1,076명, 일반학교에 2,335명, 특수교육지원센터에 6명 등 대전에는 장애인 학생 3,417명이 있습니다.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콘텐츠에 장애인 학생 3,400여 명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공간 운영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한 공간배치, 인력채용, 체험물 등에 있어서 장애인 학생을 위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울러 대전진로융합교육원 내부 또는 외부의 별도공간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학생과 이동약자를 위한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휠체어수리지원센터 공간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우리 황경아 의원님께서서는 재난취약계층의 재난 대응, 장애인 감염병 대응,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정책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기본권 보장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 건강 증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는 황경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재가장애인 수요조사를 통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계획 수립 필요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가장애인 유형 및 취약계층별 현황에 대한 수요조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재가, 거동불편한 장애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중에 맞춤형 지원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독거 어르신 대상으로 댁 내에 화재, 가스, 외출 감지센서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을 확인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설치 가구가 6,130세대입니다.

장애인, 독거노인, 질병자 등에게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19안심콜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가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가입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해서 맞춤형 구조활동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안전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그리고 119안심콜서비스 그리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건마스크 지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그리고 안전취약계층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이런 많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화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가장 취약한 분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인 것 같고 또 노약자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화재발생 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그리고 아이들이 희생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세심하게 저희가 이에 대한 의원님 의견을 잘 검토해서 보완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의 경우는 철저히 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우리 시는 특히 전 분야의 안전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그리고 매뉴얼 작업 그리고 훈련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의 화재탈출 및 재난대비 매뉴얼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애인, 노인 등 피난약자의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난약자 화재 신속탈출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매뉴얼이 2019년도쯤 피난약자 이용시설에 보급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신속하게 제작해서 더 많은 기관에, 특히 요양병원이든 노인 관련시설이든 장애인 관련시설에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특성화 대전시민안전체험관 조성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장애인 특성화 시민안전체험관 조성을 위해서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과 장애인 전문강사 양성 등 안전체험 기반도 마련하겠고, 장애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 체험시설 설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감염병 발생 이런 것도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시다만 코로나19 확진자 기초역학조사의 경우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직업 또 이에 대한 증상 및 기저질환, 감염경로 등 조사로 장애인 유무를 조사하지 않아서 별도 통계관리가 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도 추가해서 저희들만이라도 장애인 유무를 조사항목에 넣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이든 OECD 국가든, 지난번 유럽출장에서도 사실 실내까지 다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특히 동북아, 대한민국, 일본, 중국 정도가 마스크를 써서 강화하고 있는데 아마 코로나19는 서로 비슷한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실내, 실외 쓰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 청소년들 발달장애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언어를 습득하고 표정관리를 할 때 얼굴에서 교육받는 게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마스크를 장기간 쓰면서 아이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고 특히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다시 검토해서 중대본에 마스크를 실내까지 벗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이렇게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미국, 유럽, 아랍 출장 과정에서 대부분 국가가 지금 마스크를 실내까지 거의 벗었고 특수한 경우만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에 대해 한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 문제에서

특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앞으로 마스크를 포함한 코로나19 전체에 관련해서 한번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가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장애인 유무 조사는 앞으로 통계에 잘 반영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걱정이 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월 2월 7일 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서가 시행되고 있고요.

등록장애인 여부나 장애유형, 지체나 정신 그리고 장애정도, 중증이나 경증이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유무, 동거유무 등을 포함하여 통계자료를 특별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병행해서 우리 시가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전시는 이 역학조사에 장애유형 세부적 분류를 함께 포함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조기 건의를 통해 장애유형별 중증도를 고려하여 코로나 상황을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는 앞으로 통계관리를 철저히 관리하고 치료에 대한, 특히 취약계층 그리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감염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장애인단체, 시설 장애인, 건강·보건 부서가 협력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6월에 시교육청, 장애인단체 그리고 시설 등 14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 코로나19 대응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응방안들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민관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발생하는 각종 감염병에 대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총체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서는 유소년체육 인프라를 기초로 한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사업 등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정책에 관한 대전시 계획을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스포츠클럽 육성과 활성화에 대한 의원님 말씀에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이에 우리시는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및 맞춤형 생활체육을 강화하여 대전을 대한민국 생활체육 허브도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유소년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생활체육부터 학교체육, 전문체육을 연계한 스포츠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체부에서는 「스포츠클럽법」 제정으로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기반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학교체육 활성화 등 스포츠활동을 지원하고자 등록·지정 스포츠클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와 협력하여 학교의 스포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정스포츠클럽을 선정하여 학교 체육활동 운동부 운영을 체계적으로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유소년체육 인프라 지원 및 지역주민이 원하는 스포츠종목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과 별개로 2020년부터 학교와 연계한 대전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은 2개 종목입니다, 농구와 탁구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8억 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탁구는 동문초등학교, 농구는 갑천초 등과 연계하여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엘리트선수 육성 및 유소년 유망종목에 대한 성장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학교 체육활동을 통한 유소년체육 활성화 및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황경아 의원님께서서는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정책과 구 충남과학교육원 현황 및 향후 활용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운동부 운영주체를 체육클럽으로 전환하는 정책 도입에 대하여 제안해 주셨습니다.

최근 일부 학교운동부에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생선수 부족현상, 운영에 대한 행정적 업무 증대, 학교운동부 창단 및 운영에 대한 학교 현장의 기피현상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학교운동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부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운동부를 지역의 다양한 소속과 수준의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지역형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자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형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로융합교육원 진로프로그램 콘텐츠에 장애인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의 진로체험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단위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학생이 참여할 경우 일반 학생과 함께 통합교육의 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학생을 위한 다양한 진로직업교육은 대전특수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 학생을 위한 심화 진로직업교육이 필요한 경우 대전특수교육원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로체험 중 웰빙복지마을은 의료 및 복지 관련 4개의 진로체험을 운영할 예정으로 특히 복지 관련 체험프로그램에서는 장애이해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재활의학과 의사 및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최적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의 시설 설계와 공사에 장애인 학생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진로교육프로그램 운영 인력에 대해서도 통합교육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학생의 참여 시 전담 보조강사를 활용하여 모든 프로그램에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의 공공서비스 향상 공간을 포함한 활용계획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관동 부지의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은 금년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진로융합교육원에서는 진로체험, 진로진학상담, 진로관리시스템 누적관리, 교원·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관련 연수, 진로교육 학습 콘텐츠 개발·보급 등 종합적인 진로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전삼성초등학교 통합구역 내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수 증가요인이 있고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한밭교육박물관을 구 충남과학교육원 전시관 부지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부지로 이전 검토 중인 한밭교육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전문박물관으로 우리나라 교육 변천사를 전시하고 다양한 학교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변화된 전시 및 체험환경 조성과 각종 편의시설 확보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 및 지속 방문 기회가 필요하고 수장고 및 전시공간 확대와 시설 개선으로 유물 보존 및 원활한 전시환경으로 미래교육유산 보존 안정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공시설의 공동이용을 통한 유희공간 방안에는 아주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이나 한밭교육박물관은 학생 교육활동을 위한 시설로 교육목적 이외의 유희공간 마련은 어렵습니다.

다만 대전진로융합교육원과 한밭교육박물관이 교육가족과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 주차장을 포함한 시설을 적극 개방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명실상부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황경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경아 의원(1차 보충질문)

이장우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부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듣기에 좀 부족한 부분과 또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정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장애인재난안전종합대책을 세우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재난대응안내서를 제작 발간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또 장애유형별로 안내서 8종 목록, 지금 다시 줄여서 4개의 종목으로 발행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내서는 재난현장에 적용하기에 아직도 많은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2018년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화재에 대한 장애인 사망자 비율은 57.4%, 전체 12.1%에 비해서 약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난 시 대피를 위한 자체 전원 공급기능을 가진 피난용 승강기는 초고층 빌딩에만 의무화되고 있으며 환자이송을 위한 1.7m 이상의 계단폭을 확보하도록 하는 국제표준이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이러한 사실조차 잘 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층건물이나 지하 또는 홀로 사는 독거장애인 대한 구조 매뉴얼은 전무합니다.

응급안심안전서비스 관련된 부분에서는 5개 구의 노인복지관에서 약 6천여 세대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전시 등록장애인은 7만 2천 명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신고자가 신고를 했을 때 진행하는 일방향입니다.

시장님, 우리 대전시가 복지 수범도시답게 전국에서 재난안전 취약계층이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선제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시기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 시 장애인은 자폐, 지체, 시각, 청수장애 등 장애유형에 따라 행동 특성이 다른 것을 고려하여 장애인에 대한 대응방안과 건물관리자 또는 조력자가 장애인을 어떻게 피난시켜야 하는가 하는 방법을 담은 행동매뉴얼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소방서의 화재 안전교육과 피난훈련은 소화기 사용 및 피난동선 체험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관이 장애유형별 장애인의 행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장애인을 안전한 장소로 피난시키는 방법이나 대응을 제시하는 교육 및 훈련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피와 구조 투트랙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시장님,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은 미국 국토안전부 산하기구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FEMA 내에 장애인통합조정부서라는 장애전담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등록 유형 및 현황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2만 7천여 명의 장애인 중에 최중증장애인과 독거장애인의 재난 시 조력자 지정과 대피 및 구조 등 종합적인 우리 시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으로 설동호 교육감님 답변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교육감님 답변에 상당히 많이 실망했습니다.

특수학교 6곳과 일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까지 합해서 3,400여 명의 장애 아이들이 있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이 그 아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각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연계해서 하면 되지 진로융합교육원 왜 만듭니까?

장애아이들은 특수학교에서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제가 진로융합교육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을 적에 주차장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면적이 약 8천 제곱미터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이 안에 못 들어가면 바깥에라도 방법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법으로 장애인편의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3,400여 명의 장애학생들에 휠체어 타고 있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장애 관련된 부분에서 자료를 확보하려고 했더니 제대로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중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들, 우리 아이들 그리고 대전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제가 30여 년의 장애인 활동을 하면서 얻은 경험으로 집행부에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0평, 50평, 아니 20평만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구나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장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애인편의증진법이 있는데, 보장구 수리 관련된 법이 있는데 주차장만 못합니까?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평소 설동호 교육감님은 제가 존경해온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설동호 교육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매우 실망이고, 답변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변명하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의지를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의 이러한 부분에서의 적극적인 의지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황경아 의원님께서 화재 및 감염병 상황에서의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 대응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장애인행동매뉴얼 그리고 대피구조시스템 구축, 최중증장애인, 독거장애인의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황경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전진로융합교육원에 휠체어센터 설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 황경아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은 대전이 특수교육이 제일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제일 최초로 대전특수교육원을 직속기관으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모든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실습도 하고 특수교육 학생들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결국 특수교육 받는 학생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직업을 갖는 것입니다.

보통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기쁨을 갖는 것이 직업을 가졌을 때 본인도 행복하고 가족도 행복한데 우리 특수교육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을 가지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기 때문에 본인도 행복하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던 부모님들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은 우리 특수교육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대전특수교육원과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이 서로 연계해서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들한테 어떻게 더 역량을 길러서 미래에 직업을 갖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진로체험이라든지 모든 것을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데 지금 황경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진로융합교육원에 휠체어수리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진로융합교육원을 과학교육원 부지에 짓는데, 한밭교육박물관도 오는데 그것은 교육시설입니다.

교육시설 내에 휠체어수리센터를 짓는 것은 교육하는 아이들이나 특수교육 학생들은 물론 일반 아이들까지도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거기에 수리센터를 짓는 것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런 문제는 대전시와 협의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 장애를 가진 분들도 휠체어수리센터에서 모든 것을 편리하게 휠체어를 수선도 하고 관리도 하고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양해 말씀드릴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깊이 있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이나 한밭교육박물관 내에는, 그 안에는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휠체어수리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저희가 많은 것을 연구해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으니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방안을 같이 협의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송인석 의원님께서서는 가칭 천동중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인근 개발 현황으로 천동3구역과 대성지구 총 4,397세대의 대단위 개발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어 해당 학교군 내 중학교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천동중학교 학교예정부지에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학교 설립은 개발지역 해당 학교군 내 학교의 전환 가능 교실 확보와 증축 등으로도 분산배치가 불가능할 경우 추진할 수 있습니다.

천동중학교 예정부지 학교 신설은 현 시점에서는 학교군 내 분산배치가 가능하여 검토 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만 2024년 천동3구역, 대성지구 입주로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나 학교 설립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군 내 학교 재배치와 학군 재검토를 통해 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 설립 TF도 구성하여 다양한 학교모형을 개발하는 등 내년부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송인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